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

김 미 옥<sup>+</sup>

(전북대학교)

이 미 선

(전북대학교)

### [요 약]

이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은 '홀로 소리없는 세계에 갇힘', '소통하는 법을 터득함', '농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찾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을 "소리없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통(通)함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잘 볼 수 있는 사람인 농아인'으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情)을 나누며 살아감"으로 맥락화하였다. 홀로 소리없는 세계에서 소통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는 수화였으며, 이는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을 배우고 이해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은 사회로 한발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면서, 스스로를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각장애(농), 의사소통, 수화, 농문화, 현상학적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흔히들 소통이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에게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형성할 때 미치는 영향

---

<sup>+</sup> 주저자

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양질의 소통을 기대하며, 더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소통의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언어이다. 그리고 이 언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이다. 만약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소리라는 세계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일까?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것일까? 그리고 소리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누군가는 소리로 소통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된 것이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복합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녀는 시각장애는 세상과 청각장애는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킨다며,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듣지 못하는 것’의 고통과 이로 인한 인간적 삶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사람이 타인이나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청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 역시 ‘인간은 언어의 집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언어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즉, 언어는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자 타인과의 만남을 위한 매개체이며,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조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며, 소통의 형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언어는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언어학자들은 언어는 문화 그 자체이므로 다른 언어 사용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차적인 의사소통 도구인 음성언어(소리)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이미선, 2010).

음성언어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청각장애라고 한다. 이들은 음성언어 대신 수화, 구화, 필담 등을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한다. 음성언어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청인<sup>1)</sup>과 음성언어 이외의 것을 도구로 활용하는 이 양자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음성언어에 기초한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수라면, 음성이외의 수화 등을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임이 분명하다. 특히, 한번도 음성언어(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 청각장애인들은 출생과 함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즉, 음성학적 의사소통으로부터 학습하는 언어발달 뿐 아니라 소통의 방법, 인지, 사회, 정서 등 전 발달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로서, 청각장애인들은 일반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논의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마치 다른 언어권이 상이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인과는 다른 독특한 청각장애인의 문화가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청각장애인이 음성언어가 불가능한 소리없는 세계로부터 수화 등의 소통의 세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그들의 독특한 농문화에 관한 연구(Preston, 1995; Kaplan, 1996; Fischer, 2000; Ladd, 2003; Rosen, 2003), 농인의 삶과 수화(조용순·권요한, 2009; 박정란, 2010; 장윤영·정호영, 2010)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소리없는 세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중증 청각장애와 음성 언어장애를 동반한 즉, 듣지도 말하지

1) 청인(聽人)은 청력을 가진 사람, 즉 청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칭한다.

도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내부자 관점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험의 본질과 의미 규명에 유용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듣고 말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의사소통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적 함의 도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문헌고찰

의사소통의 어원은 라틴어로 'Commuvis'로서, 대화를 통해 사실, 생각, 감정 등이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김희태, 2012). 의사소통은 감정, 생각,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이를 통해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의 과정이다(이형득, 1989). 의사소통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어서<sup>2)</sup>, 여기에서는 청각장애에 초점을 두고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청각장애란 청력에 손실을 가진 모든 장애를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90dB 이하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난청으로, 91dB 이상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농(聾)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0dB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청각장애인이라 칭한다(김미옥, 2003). 청각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은 청력손실로 자연음이나 환경음,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음성언어의 자연스런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사고하고 행동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지체될 수 있다(김성하, 1999). 이에 청각장애인은 제한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사고는 상당히 시각적이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언어인 수화에 의존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고도로 발달된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한 시각적 형식, 즉 '공간-논리적' 형식을 통해 사고하고 회상한다. 건청인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시간적 순차에 따라 정리하는 반면, 청각장애인은 '논리적인 공간' 안에 정리한다(권순우, 2002). 이러한 의미에서 청각장애인은 건청인과는 다른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청각장애인은 한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 습득이 어려워져, 교육적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청각장애 중에서도 농인은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정도의 읽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간단한 문장조차도 정확히 쓰기가 어려우며, 상대방의 입술 모

2)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지만, 대체로는 과정적, 문화적, 기호언어학적 측면으로 설명한다(이주형 외, 2005). 과정적 측면의 의사소통은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 어떤 내용이 전달되며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에 초점을 둔다. 문화적 측면은 대인관계나 집단관계에서 의사소통이 갖는 문화형성의 기능적 측면이나 다양성에 초점을 둔다. 기호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은 기호로서 언어와 상징 및 행위 등이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초점이 있다. 이 연구는 문화적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의 농인문화 형성과 의사소통과의 관련성 그리고 기호언어학적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인 수화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이나 움직임은 보고 말을 이해하는 것도 극히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3). 또한 청각장애인은 일차적인 언어가 수화로서 건청인이 사용하는 국어는 외국어와 같기 때문에 읽기, 쓰기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맞추어 암기해야 한다(한국농아인협회, 1999). 따라서 독해력과 문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은 사회적·행동적 문제는 없으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의사소통의 제약을 받으므로 자신을 타인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등의 심리적 불안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어느 정도 들리느냐 혹은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이준우, 1995: 29~35). 첫째, 구화(口話)와 독화(讀話)는 상대방의 입술을 보면서 입 모양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독화 혹은 독순(lip-reading) 방법이다.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화가 되며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독화가 된다. 이는 수화(手話)와 대비되는 언어이다. 그러나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화, 독화에 의한 대화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둘째, 필담(筆談)은 글을 써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수화를 모르는 건청인이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필담은 내용 전달 면에서 완벽하게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대화할 때만 이러한 효과가 있을 뿐 여러 사람이 함께 필담으로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중 수화만 알고 일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 언어의 문법체계에 따른 글을 이해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필담이 어려울 때도 있다. 필담은 대화자 둘 다 자기 의사를 글로써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셋째, 듣기는 보청기의 발달과 청능 훈련의 발달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으로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이다. 듣기 방법은 조기교육을 받았거나 또 청력상태가 좋은 소수의 청각장애인에게 가능하며, 청력상태에 따라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넷째, 수화는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사소통 양식이며 청각장애인의 손으로 표현하는 언어이다. 즉, 수화는 시각 경험만으로 이 세상을 체험하고, 시각 경험에 의해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이 창조한 독특한 문화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모국어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청각장애인들이 모두 혹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력의 손실정도와 구화능력 및 교육, 환경에 따라 대화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화, 구화, 필담, 듣기 등을 병행하거나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농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청각장애가 다른 장애와 달리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으므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로 농문화의 형성이나 특성, 수화의 사용과 관련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각장애인에 관한 연구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수화로 이들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각장애인은 선천적으로 혹은 생애 초기에 청각장애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장벽에서 오는 차이를 가진 문화적·언어적 소수집단의 일부로 간주하고, 모국어로서 수화를 받아들이면서 농문화와 자신을 일체화시킨다(Lane, 1990). 특히, 농문화의 형성 중 중요한 요소는 청력의 손실시기이다. 청력손실의 시작연령은 언어발달과 관련된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2세를 청각장애 시각의 결정적 연령으로 설정(김병하 외, 1994)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한번도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선천적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손실이 음성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들어보지 못한 단어와 문장을 언어화시키고, 익힌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큰 장벽이다. 이러한 경향은 감각장애 중 하나인 시각장애와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농문화의 영향으로 청각장애인들은 농사회 주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인가녀 중 60%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reston, 1995).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청각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 도구인 수화에 관해서는 심리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석동일, 1989)를 시작으로 수화사용 및 수화통역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박정란(2010)의 연구가 있다. 공통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에서 자연히 소외되기 쉬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Schleif(2006)는 청각장애인들은 차별, 억압, 그리고 그들이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말을 해야만 하는 수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경험하였고, 그 결과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보호하고, 이를 스스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각장애 자체의 특성이나 이로 인한 농문화 및 수화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떠한 경험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내부자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의사소통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전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두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첫째, 적절성을 충족하기 위해, 듣지 못하며 동시에 음성언어를 할 수 없는 중증청각장애인 중 이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의 손실 시기가 중요하므로, 생애초기에 청력 손실이 있었고, 현재 수화로 대화가 가능한 자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5명이고,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2명이며 연령은 30대~50대이다. 연구참여자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1(58세, 남)은 누나 두 명이 있고,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둘째 누나 역시 청각장애가 있으며, 외아들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청각장애 아내와 청인 자녀 셋을 두고 있다. 원인 불명으로 2~4

세 사이에 청력을 상실하였고, 늦은 나이에 농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장애를 알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며, 수화를 배웠다. 청인어머니와 청각장애 아내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오해와 잦은 갈등으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힘든 짐이 되고 있다. 그래도 매사 긍정적이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연구참여자 2(52세, 남)는 청인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3살 때 홍역으로 청력을 잃었다. 부모님은 청력 상실과 무관하게 일반 학교에 입학시켰고, 구화를 강조하였으며, 일반 초등학교에서 적응이 힘들어 5학년까지 다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특수학교에 1학년으로 재입학하였다. 신학을 전공하여 현재 농인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아내와 청인 자녀 둘을 두고 있다. 연구참여자 3(45세, 남)은 청인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만큼 가족 내에서 청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미신, 신앙 등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3~4세에 열병이 심하게 걸려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귀 내부 치료가 되지 않아 대학병원에 갔는데,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청력을 상실하였다. 청각장애 아내와 결혼하여 청인 자녀 둘과 살고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농 통역사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4(38세, 여)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다. 오빠 한 명과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구화 사용을 강조하는 부모님 때문에 일반학교에 입학하였다 듣지 못하고 놀림 당하고 어울리지 못하여 일 년을 쉬다가 특수학교로 가게 된다.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취업에서 청각장애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인의 소개로 청각장애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현재 자녀 셋을 둔 주부이다. 연구참여자 5(38세, 여)는 청인부모의 막내딸로 태어나 5세에 열병으로 청력을 상실했다. 시골에서 청각장애를 숨기고자 부모님은 집 밖으로 보내지 않았고, 집에서 지내게만 하여 부당한 대우를 가족 내에서 경험하였다. 14세에 농인단체 임원이 집을 방문한 계기로 농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2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청각장애인으로서 자유를 얻게 된다. 청각장애 남편과 결혼하였고, 주부로 살고 있다.

##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정도 이루어졌다. 본조사에 앞서 청각장애인 1명을 예비 인터뷰하였고, 실제 본조사를 위한 연구질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면접에 걸린 시간은 1회당 40분~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1인 1회에서 3회의 면접을 하였다. 본 연구원 중 1인이 수화통역사로서, 수화가 가능하여 직접 인터뷰하였다. 면접질문은 비구조화된 것으로,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개방적이고 유연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진행과정이 수화로 이루어져 녹음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인터뷰시 녹화를 보조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수화 사용뿐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동작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비디오를 보고 이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외에 10년 이상 경력의 수화통역사에게 보여주고, 수화가 정확히 구술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분석은 Giorgi(2004)가 제시한 '과학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4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참여자의 기술문을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직관, 분석, 기술을 통하여 각 단계를 거치면서 참여자의 의미를 확인, 기술하도록 돕는다. 1단계는 연구 참여자와 면접과정을 녹화한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진술문을 연구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충분히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지식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2단계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을 의미단위로 파악하여 구분하였다. 3단계는 이러한 의미단위를 사례별로 정리한 후 5명의 전체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중복되는 의미단위이거나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한 의미단위들을 제외시켜 의미단위를 정리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구성된 범주의 의미들을 재검토하여 참여자들 간의 경험들을 순환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의미요약을 포함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인 하위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4단계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구성요소를 관련된 내용으로 통합하여 구성요소들을 재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 3) 연구윤리와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sup>3)</sup> 우선, 연구자는 참여자와 관계형성을 하면서 참여자와 면담한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는 점과 익명성과 사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대화 내용의 비디오촬영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비디오촬영은 연구 참여자와 수화로 면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음성녹음이 불가능했고, 수화를 문자화할 때, 연구자 단독의 일방적인 분석이 아니라 다른 수화통역사에게 연구자의 수화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가 끝난 뒤에는 녹화된 기록을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면담하는 동안에 특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고,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동의서 내용을 수화로 다시 설명하여 자필로 동의를 얻고, 이를 녹화하였다. 이와 함께 면접도중 언제나 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미리 말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면접장소나 면접시간도 연구참여자가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자택과 레스토랑, 수화통역센터 교육실을 선택하였으며,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 녹화를 하였다. 처음에는 캠코더 등에 대한 반응으로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지만, 대화하면서 점차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특별히 연구참여자가 비밀보장을 요청하

3) 연구자 중 1인은 수화통역사로 12년간 근무하였으며, 1년 동안 농인교회에 다니면서 농문화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제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자칫 자료수집에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연구자의 선이해를 정리하고, 분석과정에서 이러한 선이해가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체 인식'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거나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다만 가족사에 대한 부분에서 가족의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참여자가 1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인용 등 분석 과정에 제시하지 않았다. 1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의사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하시며,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지키기 위해 본 연구자는 Padgett이 제시한 전략을 활용하였다(유태균, 2001). 우선, 솔직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가 시작되기 전 연구참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전에 1~2회 정도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면담 전부터 문자 및 영상통화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정확한 면접 내용의 녹화를 위해 본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참여자 2인, 10년 이상 경력의 수화통역사 1인에게 추가로 본 연구의 녹화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녹화파일과 필사본을 같이 주고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본 연구자 중 1인 역시 12년 동안 수화통역사로 일하였으나, 수화의 특성상 왜곡된 해석을 우려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를 비교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연구의 전과정에서 공동연구자가 서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보다 엄격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분석과정에 적용하여, 가능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구축된 원자료, 현장기록, 면접기록, 연구자의 자료수집, 자료 분석, 메모 등을 감시 자료로 남겼다.

## 4. 연구결과분석

### 1) 경험의 중심의미 및 구성요소 도출

본 연구결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은 156개의 의미단위로 구분되었고, 이는 다시 8개의 중심의미와 3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의사소통에 대해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부터 그 방법을 배우고, 의사소통의 세계로 나아간 시간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1〉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에 관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중심의미
홀로 소리 없는 세계에 간헐	듣지 못해 힘들고 서러움 말하지 못해 갑갑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소통하는 법을 터득함	동질감으로부터 오는 안도감 소리 없는 언어를 '눈'으로 들음 '눈과 손'으로 소리를 말함
농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찾음	통(通)함을 이해하고 나아감 수화의 세계에서 농아인답게 살아감



### (1) 홀로 소리 없는 세계에 갇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것이었다. 서로 웃으며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서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서로 나누는지를 알 수 없는 그 소리없는 세계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 ① 듣지 못해 힘들고 서러움

연구참여자들은 언어습득 전 청력손실로 자연스런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인들과는 달리 들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언어발달이 어렵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뿐 아니라 소리 없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 즉, 폭행당함, 놀림당함, 무시당함, 이용당함, 따돌림당함 등 청력 상실이라는 다름의 차이로부터 차별과 폭행 등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주변인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 자신의 장애를 알게 되며,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에 박탈감을 느끼고, 박탈감은 결국 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배우려다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마을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면 나에게 귀가 안 들린다고 말도 못한다고 만나기만 하면 바보, 멍청이, 병어리, 귀머거리라고 많은 욕들을 했고, 그런 욕을 일방적으로 받아야했어요.(중략) 자기 형들과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저를 집단적으로 때리기도 했어요.-①

소소한 일상에서의 즐거움 중 하나인 음악을 듣는 것의 의미는 진동을 느끼는 것으로 대신한다. 화려한 춤동작은 심리적 즐거움이 아닌 무성에서의 움직임이다. 청인들은 오락프로를 보며 웃거나, 떠들다 한참을 웃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무성의 유머에 반응할 수 없으며, 청인들의 대화내용이 신경 쓰이지만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이내 지루하게 느껴진다. 듣지 못함이 가장 힘듦은 지옥 같은 날들로 대변되는 ‘말로만 설명되는 사회’에서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에서 소외됨이었다. 그것은 누리지 못함에서 오는 어려움뿐만이 아니었다. 예컨대, 한 연구참여자는 청인과 함께 일을 하는 중에 듣지 못해 기계 작동의 무방비상태에서 기계 사이에 팔이 끼어 두 번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참혹한 사고도 경험하였다.

도시락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압력 기계 내린다고 말로 하고서 부장이 스위치를 눌러 갑자기 팔이 기계에 깔려서 소리를 듣지 못해서 두 번의 대수술을 거쳤고, 보상도 못 받고, 회사는 나중에 부도나고, 그런 좌절로 살아오다가...(중략) 노래는 들어보지 못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힘들어요. 음악은 아주 크게 틀면 진동만 느낄 수 있어요.-③

한 참여자는 임신해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다. 내 아이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는 것,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어떠한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소리는 물론 이뿐만은 아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과정 전반에서 우는 소리조차 듣지 못해 반응하지 못하고, 특히 의사 전달이 어려운 영아 양육에서 참여자들은 전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드러났다.

나는 (첫째)아들, (둘째)아들, (셋째)딸을 낳을 때 정말 아이들이 엄마...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너무 답답해. 엄마하는 소리를 원했는데, 아이를 낳고 제일 소원했던 것이 아이들이 엄마 불러주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 엄마 부를 때 오른쪽 어깨를 쳐서 부르는 게 전부야. 나는 아이들 목소리가 궁금해. 발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목소리가 예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어려워. 태어날 때부터 농아인이고, 농아인데 청인 아이를 낳으니까...-④

청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력손실과 언어체계의 차이로 자료와 정보열람 같은 정보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 청인은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반면,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기에 음성언어중심의 사회에서 정보에 늦은 반응을 하게 되고, 아예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에서 공지 방송을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농사회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TV 자막서비스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사소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모두에서 넘어야 할 장벽과 한계를 실감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함’으로부터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일부 삶의 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 그 자체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청인들은 듣고 싶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정보를 들을 수 있지만, 농사회는 속도가 늦어요. 많이...-②

## ② 말하지 못해 갑갑함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언어적·문화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청각장애인은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청각장애인 가족은 수화보다 구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서(김경진, 2006), 연구참여자들은 청인들의 입모양을 따라하는 구화를 선택하여 연습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화는 어렵기만 했다. 또한, 몸짓 언어를 통해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간단한 대화 밖에는 할 수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화를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소통 문제는 참여자가 알고 싶어 하고, 고민되는 것들을 결국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참여자 자신만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함에 있어서도 말을 할 수 없기에 설명하기 어렵고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특수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웠으나 소리를 듣고 쓰기를 하는 방식과는 다른 눈으로 습득한 글은 생각을 표현하기에 어려운 도구임이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받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려웠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청인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언제나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어 너무도 답답한 느낌 많아요.-②

농인들은 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워요. 열심히 배우도 듣지 못한 글씨를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것이 힘들어요. 저도 30%를 글로 알면 70%는 보고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글을 수화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글로 생각을 써 보려고 해도 듣지 못한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①

말하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홈싸인(Home-sign)<sup>4)</sup> 대화로 몇 가지의 단어로만 대화하거나 소통이 거의 안 되어 대화가 단절됨으로 드러났다. 가족과의 홈싸인은 집밖에서는 통하지 않는 외계어 같은 것이었다. 일상대화만이 아닌 직장에서 작업 지시나 교육을 받을 때 서로 간 소통 단절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곧 직장생활에서 이직률의 원인으로 확장된다.

가족 내에서도 대화가 어려운 것은 부모와 형제들이 수화를 배우고자 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배울 기회가 없어 대화를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수화를 자신들이 배우기보다는 청각장애인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서(청인화) 대화를 하고자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 참여자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중에도 끝내 수화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꿈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꿈에서마저, 수화가 아닌 구화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는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도 단 한 번도 길게 대화한 적이 없었다. 그저 몇 개의 동작으로 생각의 일부를 전할 뿐이라고 했다. 여성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대화의 문제는 원가족만이 아닌 결혼 후 고부간의 갈등에서 더 큰 부담감과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원가족들과 몇 개의 몸짓언어의 소통이 결혼 후 시댁이나 처가에서는 통하지 않는 어려움이 대표적인 것이다. 청인인 시어머니와 청각장애인 며느리 사이는 의사소통의 단절로 빈번한 오해가 발생하였고,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생각을 전할 수 없어서 깊은 갈등만 수년째 누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의사 표현 체제인 홈싸인은 가족 간의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게 했고, 이는 가족 간의 관계형성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고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아내와 어머니 둘 사이에 짐을 어깨에 무겁게 나란히 지고 한쪽으로 아내를, 한쪽으로 어머니를 섬기는 무거운 짐을 지금껏 지고 왔어요. 자녀들 앞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있어요. 만약 청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았다면 아마 어머니께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서로 대화가 가능하니까... 만약 그랬다면 저는 또 대화가 안 되어 소외받았을 것 같아요.(중략) 물어보는 방법을 몰라 묻지 못했고,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①

### ③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머니가 읽고 있는 성경책을 곁에서 보고 있어도,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없고, 한글을 보고도 뜻을 몰라서 답답하다고 하였다. 어떤 익숙한 단어나 문장을 접하면, 그 의미가 궁금하고 고민스럽다.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와 문장을 글로 적거나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이다. 연구참여자지는 국어가 가장 어려워져 집 앞에 병어리라고 놀리며 적어 둔 옥설에서 본인 이름만을 확인할 뿐 옥의 내용을 몰라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얘기하기도 했다.

취학 전, 연구참여자들은 '소리가 들리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며, 청인의 입모양을 그대로 따라 해보기도 하고, 구화를 연습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들어보지 못한 어떤 것을 소리로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어눌한 모습이 되고, 이는 주변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된다. 연구참여자들

4) Home-sign은 청각장애인의 개인적인 수화를 뜻한다(<http://dic.daum.net>).

은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세계에서 모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의사소통의 한계를 절감한다고 하였다. 특수학교에서조차 수화보다는 구화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화사용을 금지하는 음성위주 수업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듣지 못하는데 말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정확한 문장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국어는 농민들에게 가장 어려워요. 마을에서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늘 봐오던 사람인데도 모르고 어느 때에는 누가 우리 집 앞에 벽에다 옛날 집 앞 벽에 큰 글씨로 낙서를 제 이름 000, \*\*, \*\*(옥설)라고 적어두었지만 그 뜻을 몰랐고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내 이름만 알고, 뒤에 옥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니 반응을 할 수 없었고... 나중에 입학하고 나서야 옥인 것을 알았어요. 한글은 이름 하나만 알았으니까요.-①

아~아 계속 소리를 내고, 말로만 가르치고, 노래도 실로폰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를 모르는 데 입모양으로 가르쳤고...(중략) 구화연습만 많이 시켰어요.-③

청각장애인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만 있을 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한 김미옥(2002)의 연구에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등급 역시 청각장애인은 최종증인 1급이 없다. 완전히 귀가 들리지도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2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의 법정 장애인 15종 중에서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그러나 실제 청각장애인들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은 소외감과 불편한 시선을 경험한다. 수화를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가능한 수화를 피하면서 장애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청각장애가 드러내지 않고 은폐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숨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기제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기제는 구화를 강조하는 가족 내에서도 같은 형태로 이어져서, 가족 내의 차별이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낳기도 한다. 한 참여자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4년 동안 외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가족들이 못나가게 한 것으로 집안에 숨겨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 함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 내에서조차 충분히 친밀한 관계형성의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입해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장애로 어린 시절부터 제한된 정보를 갖는데, 이에 덧붙여 제한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 청각장애인들은 소외감과 좌절감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과 답답한 느낌은 계속되고 무엇인지로 모르는 채 답답하고 아무리 봐도 어디에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고, 말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어요.-②

십 사년동안 집에서 숨기고 있었어요. 마을사람들에게 부끄럽다고 부모님이 집안에만 숨어 있으라고 하고 밖에 못나가게 했어요.-⑤

## (2) 소통하는 법을 터득함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낯설기만 한 그들에게 자신과 같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것은 충격이었다. '나만이 아니구나'... 그들은 안도하였고, 다시 시작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수화는 청각장애인이 홀로 갇힌 세계에서 소통하는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하는 소통의 방법을 배우면서,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 ① 동질감으로부터 오는 안도감

연구참여자들은 집안에만 있고 부모님들이 일반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농아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한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장애를 놀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만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던 기억은 아프기만 하다. 듣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다. 늘 혼자인 그들에게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해서 참여할 수 없는 수업은 답답함의 연속이었고, 공부를 포기하게 했고, 열등감만 더 깊어지게 했다. 건디다 못해, 농학교로 전학을 간 참여자나 처음 농학교에 입학한 참여자들은 그곳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발견을 하게 된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엄마가 억지스럽게 보내서 학교에 그냥 갔는데, 선생님도 잘해주지만 말 안들리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친구들은 욕 많이 하고, 말 못한다고 병어리라고 놀리고 귀가 안들리니까 일반학교 입학해서 너무 갈등이 많았어... 친구들 계속 놀려서 얼마나 참았는지 학교 가기도 싫고...(중략) 친정에서 농아학교는 50분이 걸렸는데 통학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학교 가서 농아 친구들도 만났고, 선생님이 수화하는 것도 처음 봤어. 문제 설명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수화로 설명도 잘해주고, 그 때 수화를 시작했어.-④

듣거나 말하지 못해도 그들만의 소통방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엄청난 환희를 경험했으며,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 큰 힘을 얻었다고 하였다. 수화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구참여자들은 동질감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다. 이는 홀로 소리없이 갇힌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것만 같은 경험이었다.

그 때가 내 나이 열네 살 때 00에 있는 농아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 교실은... 정말 너무 크게 놀랐어요. 모두가 손을 움직이고... 전 눈으로 사방을 살피며 너무도 충격을 받았고, 정말 놀랐어요.-①

나 혼자만이란 좌절감에서 나와 같은 그들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니 너무 힘을 받았어요. 와~ 탄성이 나왔어요. 나만 혼자가 아니다... 생각하니 휴... 하며 힘을 얻게 되었고... 그 때는 정말 박수가 절로 나왔어요.-⑤

### ② 소리없는 언어를 '눈'으로 들음

수화는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눈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들은 수화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수화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동물과도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며, 수화가 청각장애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강조하였다. 이는 수화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에게 서로 소통함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수화가 아니었다라면,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맹농인으로 대화도 못하고 멍청이와 같은 삶... 아직도 하면 된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고, 어머니를 따라 간 그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있지만 오는 바보 된 느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바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았을 거예요. 동물과 같은... 비슷한 삶을 행동만 하면서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①

난 만약 수화 없었으면 완전 큰일이야. 수화가 없었으면 몸짓만 쓰지 단어도 모르고 완전 몰랐을 거야. 정말 어렵게 살고 희망도 없이 살았겠지... 그래도 농아학교에 보내주어서 부모님께 감사해...(중략) 일반학교 다닐 때는 점수도 꼴등 나오고, 문장도 모르고 이해도 안되니까 앉아있기만 하고... 농아학교 다니니까 백점만 맞고, 수화 설명 다 아니까...-④

또 다른 참여자는 수화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직업도 없고, 문맹이 되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일반학교에서 들리지 않는 음성수업을 5년 동안 받으며, 그냥 무의미하게 교실에 앉아있으면서, 그들은 지능이 낮거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수화는 학습에 힘을 부여해주었고,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었으며, 세상 안에서 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수단이었다.

만약에 수화가 없었더라면 제가 청인학교에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수업하기 때문에 공부 힘들 것인데 농아인은 무식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수화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②

### ③ ‘눈과 손’으로 소리를 말함

수화는 음성언어와 다르다. 음성언어가 청각으로 이해하고 음성으로 표현되는 ‘청각-음성 체계’에 반해 수화는 시각으로 이해되고 손으로 표현하는 ‘시각-운동 체계’이다(Davis and Silverman, 1978).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인식보다 소수민족 또는 농문화권의 인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농인과의 상호의존을 소중히 여기고 수화를 하지 못하는 청인과의 어울림은 꺼려하나 수화를 익혀 문화적 동질성을 획득한 청인도 농인공동체의 일부로 본다(이준우, 2004). 이러한 생각을 가진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는 그들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의사소통 도구이다. 손으로 말할 수 있다는 발견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과 같은 것이다.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 표현하고, 그 표현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큰 반전인 것이다. 수화의 사용은 청각장애인에게 큰 기쁨인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동정의 시선을 받게 한다. 그들은 청인들의 세계에서 수화를 사용할 때 느껴지는 불쌍한 존재로 비추어지는 자신을 인식

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청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화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갖게 된다. 수화는 세상과 소통의 도구이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수화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교제도 하고, 선생님께 손으로 많이 배우니까 발전도 있고, 책을 보고 단어를 익힐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좋았어요.(중략). 수화를 배우면서 나를 알게 되고, 왜 내가 못 듣는 이유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장애에 대해서도 다른 청각장애인을 만나고, 수화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어요.-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는 또 다른 세상으로의 안내자이기도 하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얻은 후, 자신감을 얻고, 더욱 공부할 희망을 찾고,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수화를 배우지 않았다면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수화는 어둠 속에서 환한 빛과 같아요.-②  
숫자와 수화를 같이 배우고, ‘ㄱ’부터 다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등을 수화와 그림, 글자와 함께 해서 배웠어요.-①

### (3) 농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찾음

수화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운 그들은 농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구성하며 살고 있었다.

#### ① 통(通)함을 이해하고 나아감

수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면서 얻은 가장 큰 기쁨은 통(通)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청각장애인들은 집에서는 제한된 홈싸인으로, 학교나 사회에서는 음성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음성언어를 듣지는 못하지만, 수화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만나는 청각장애인들은 그들에게 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수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들 안에 함께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결혼 배우자 역시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들의 다수(86~90%)는 청각장애인 배우자를 선택한다(Vernon and Andrew, 1990). 물론 청각장애인부부로서 청인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은 있지만, 부부간 의사소통이 평생을 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통의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수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들과의 관계만으로 그 영역이 한정되는 부분도 관찰되어졌다.

다른 농아인들, 선배들은 농인과의 결혼을 권장해요. 여러 명이 청인과의 결혼을 막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예요. 수화로 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서로 오래토록 생각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③

## ② 수화의 세계에서 농아인답게 살아감

청각장애인들에게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체계는 매우 절실했다. 이들에게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 준 것은 농학교, 농교회 및 농아인협회 등 농사회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수화로 다양한 상식, 정보, 예절 등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는 법을 습득하고, 한 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곳은 배우는 것, 학교가... 농인학교가 1등 공신이고 그곳에서 배웠고.. 반듯함, 예의 중요함을 수화를 통해 알았어요.-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마치 모국어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겪는 낯설음과 당혹감을 수화를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느끼고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수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으나, 바로 그 수화 때문에 다시 수화가 가능한 세상 안으로 삶이 경계 지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들에게 수화를 알지 못하는 청인들과의 소통은 보이지 않는 담처럼 여전히 높기만 했고,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또 다른 편견과 장벽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알고, 함께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수화를 할 수 있는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농아인다운 당당함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며 수화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농인이라 전 늘 답답함을 갖고 살아가요, 수화로 전 국민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자녀와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가족에서 부모와 농인자녀가 수화로 대화할 수 있다면 답답함은 해소되고 시원스런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요.-①

## 2) 일반적 구조적 진술: 현상학적 글쓰기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경험에 관한 구성요소와 중심의미를 종합한 결과, 청각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본질적 의미는 **“소리없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통(通)함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잘 볼 수 있는 사람인 농아인’으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情)을 나누며 살아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소리없는 세계에서 소통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는 수화였으며, 이는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을 배우고 이해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는 장애인으로부터 ‘잘 볼 수 있는’ 눈과 손으로 소통할 수 있는 농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화는 청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이면서 한편으로는 수화가 없는 세계와 다른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도록 경계짓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통해 소리없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은 사회로 한발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면서 스스로를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각장애인들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항상 혼자였다. 내가 왜 듣지 못하는지, 말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 소리 없는 세계에서 살아왔다.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놀림을 받거나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소리에 반응할 수 없고, 듣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늘 답답함의 연속인 삶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고, 음성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힘들기만 했다. 나도 그들처럼 말을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 갑갑했다. 들어보지 않은 소리를 어떻게 입으로 표현해 낼 수 있을까? 그들의 입모양을 유심히 보다가 흉내내어보고 연습해보아도 결국 사람들의 웃음거리, 비난으로 돌아왔다. 정말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왜 나는 그들과 다른 것일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도 뽀짝인으로 간단한 대화만을 한다. 주변인은 물론 가족들과 의사표현이 안되어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족과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알거나 할까? 듣지 못하기에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습득하더라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소리가 들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TV는 장난감일 뿐이다. 저들이 왜 웃고 떠드는지 무슨 일로 사회가 떠들썩한지 알 수 없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청인과는 달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소리와의 단절에서 어렵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나는 소통하고자 구화를 연습하고, 몸짓, 손짓을 동원하여 뽀짝인을 통한 대화나 의사표현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나만이 아닌 고스란히 내 가족들도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 못하면 글로 쓰면 된다고 편하게들 말한다. 그러나 듣지 못한 언어를 글로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제다.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을 눈으로만 익히는 것은 문장과 책의 내용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청인사회에서 음성언어로만 통하는 세상에서 좌절감과 소외감, 답답함을 느끼며 그들과 교제는 너무도 힘든 일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장애를 보듬고, 이해해야 할 가족들이 장애를 부끄러워하여 외출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유성의 세계에서 무성에 갇힌 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힘듦은 **홀로 소리 없는 세계에 갇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성의 세계, 소통의 단절 속에서 어렵게 농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을 움직여가면서 대화하던 그들의 손짓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을 통해 내 장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동질감을 느꼈고, 안도감이 들었다.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였다. 농학교에서 처음 발견한 시각으로 확인되는 언어체계는 눈으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언어였다. 무성의 사회에서 눈으로 들을 수 있는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농학교와 농교회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묻는 방법을 몰라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수화로 물어볼 수 있고, 답을 눈으로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세상의 언어가 전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수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눈으로 정보습득이 가능할 수 있었고, 나 스스로 문맹에서 벗어남을 경험하였다.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낌으로서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여 소통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수화 때문에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청인과 대화는 어렵고, 가족들은 수화를 하지 못한다. 내 배우자는 나의 원가족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가족들과는 몇 개의 몸짓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전부였으므로 수화로 대화가 가능할리 없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과 오해는 빈번할 수밖에 없다. 수화의 천국으로 불리는 농학교에서도 모두가 수화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교사 중에서도 수화를 못해 구화로만 수업을 하여 마치 중국어를 모르는 학생이 중국어로 수업 받는 환경일

때도 많았다. 듣지도 못하는데 말로 수업을 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때는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래도 농학교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나의 장애는 물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문맹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수화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며, 이세상은 어둠과도 같았을 것이다. 어쩌면 동물과도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수화를 알고 어린시절 나를 놀리고, 때리던 청인 친구들과 달리 농인 친구들과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하며 농아인답게 살아간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워서 깊이 있는 대화가 아니면 일상 대화는 그런대로 수화로 대화를 편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화로 소통이 어려운 사회에서 소통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가족 내에서도 장애를 이해하지만, 외부에서 수화를 하면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해서 학교에서는 수화를 하지 말라는 내 아이를 보더라도 수화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창피함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창피함을 주지 않으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수화를 하지 않고, 아이를 생각하여 나의 장애를 은폐하기도 한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화가 너무 고맙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청인 사회에서 수화로 소통한다는 것은 수화와 음성언어, 즉 나와 다른 언어로 상생한다는 것으로 또 다른 분리가 되는 소통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음성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내 장애를 이해하고, 나의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농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찾는다.**

## 5.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보다 깊은 탐색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청각장애인들은 홀로 소리없는 세계에 갇힌 것 같은 경험을 하며, 수화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고, 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세상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화와의 만남은 충격이자 환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처음으로 수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손으로 표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면서, 혼자만의 세계로부터 농사회 안으로 진입하여 함께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화는 그들의 의사소통에서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 못지않게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의미있는 발견은 '듣지 못함' 혹은 '한번도 소리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함'의 의미와 그것이 얼마나 삶의 전 영역에 큰 장벽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라는 명칭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흔히들 장애라고 하면 다양한 종류의 중증 장애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완전히 듣지 못하는 그들이 겪을 삶의 어려움을 간과하게 된다. 그러나, '듣지 못함'은 단순히 듣지 못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문자의 이해를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 학습을 통한 성장과 일반학교에의 적용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듣지 못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벽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회에서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에서도 큰 제한요소로 작용해서, '서로 통함' 혹은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를 이해받기 보다는 청인 사회로 그들이

동화되도록 교육받으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소리를 이해하라고 하는 강요 아닌 강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듣고 말하지 못함으로써 소리의 세계에서 갖는 이방인 의식은 그들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모든 영역의 정보로부터 소외(Schein, 1989), 억압(Lane 외, 1996), 온정주의(Lane, 1992)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엇보다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관계의 제한요소인지에 관해 청인 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장애인 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각장애로 인한 어려움 그 자체뿐 아니라 청각장애를 고통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사회적 장벽을 재인지하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청각장애인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하며 논의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홀로 소리없는 세계에 갇힌 이들에게 소통의 시작은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을 발견함에서 비롯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농학교, 농교회 등에서 수화를 사용하며 소통하는 농인들을 보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안도감을 동시에 갖는다. 그들은 수화를 통해 눈으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와 서로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삶의 전환기로서 기여한다. 그러나 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은 청인화하려는 가족들의 노력 가운데 일반학교에 부적응과정을 거쳐 농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전환기적 시점이 상당히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그들이 수화라는 세계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보다 빨리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자존감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찾아가는데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화가 이들에게 소통의 시작이자 중요한 도구라면, 이러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청각장애인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혹은 일반 사회에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각장애인들처럼 그들의 생각을 모두 수화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일부라도 수화를 통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거나, 적어도 수화사용이 장애인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란 생각이다.

셋째, 청인들의 의사소통 도구인 음성언어가 '청각-음성체계'임에 반해 수화가 '시각-운동체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많은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즉, 다른 시스템을 통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고의 구조화 역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들 농문화로 표현한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농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김경진, 2006; Preston, 1995; Kaplan, 1996), 이 연구를 통해 추가로 이해하게 된 것은 왜 그들이 농문화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에게 있어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그리고 소통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알 수 있었다. 우선, 왜 그들은 농문화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가?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처럼,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라는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적으로는 한국이라는 우리 사회에 공존하지만, 질적으로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이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있을 때의 서로에 대한 낯설음과 소통의 제한성과 유사한 듯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각장애인들은 필연적으로 수화라는 언어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소통의 공동체로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필연적 선택이라면, 이질적 문화의 섞임 그리고 서로의 이해를 위해 노력함이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독특한 문화의 형성은 다른 장애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청인사회에서도 장애인사회에서도 소외받는 독특한 소수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가지적으로 그들이 수화를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은폐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짐으로써 장애와 비장애사이의 경계에 선 소수자이면서, 다른 중증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증인 것 같은 오해 속에서 장애사회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소수자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과 경계성은 청각장애인들이 공존된 모순 속에 갈등하게 하며, 이 양자 모두로부터 스스로를 가두고, 농인사회와 농문화에 인주하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농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열린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갖는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농문화와 함께 농인 정체성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이 수화를 통해 통(通)함을 이해하고,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인사회에 경계지어진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인가를 주목해 보고자 한다. 농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회 안으로 제한받고 청인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농사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차별 혹은 진입의 장벽에 기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TV 등의 매스컴, 각종 국가시험, 일반학교에서의 수화통역의 증대 등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각장애는 그리고 의사소통의 제한은 요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정보로부터 소외를 발생시키고, 이는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차별과 소외구조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한 인간에게 의사소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 장애인복지를 전공한 연구자마저도 듣지 못하고 말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나를 계속 반성적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각장애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장벽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청각장애인의 소리없는 세계로부터의 외침에 귀기울이게 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권순우, 2002, “청각장애학생의 수화습득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진, 2006,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_\_\_\_\_, 2003, 『장애인복지실천론』, 서울: 나눔출판.

- 김병하·강창욱·최영주, 1994, 『청각장애와 언어』,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성하, 1999, “청각장애인의 취업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 2012, “자유선택활동에서의 유아들의 의사소통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6(4): 303-326.
- 박정란, 2010, “농인의 수화사용경험과 수화통역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과학연구』, 26(4): 93-122.
- 석동일, 1989,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K., 1997,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남출판.
- 이미선, 2010, “청각장애어머니의 건청자녀 양육경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행·민현식·서덕현·구현정·전은주·조재윤·박재현, 2005,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한국문화사.
- 이준우, 1995, 『소리 없는 세계를 향하여』, 여수문.
- \_\_\_\_\_, 2004, 『농인과 수화』, 서울: 인간과 복지.
- 이형득, 1989,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윤영·정호영, 2010, “농인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소리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 집단의 주제로 가능성 찾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515-543.
- 조용순·권요한, 2009, “농인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1(1): 263-284.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3, 『청각장애아 교육』, 대구대학교출판부.
- 한국농아인협회, 1999, 『한국수화찾길』, 한국농아인협회.
- Davis, H., and Silverman., 1978, “*Hearing and Deafness*”, NY: Holt Rinehart and Wilston.
- Fischer, L. C., 2000,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 Concept of Adults who are Deaf: a Comparative Analysis*”, Arizona State University, Psy. D. Dissertation.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한국질적연구센터 워크숍 자료.
- Kaplan, H., 1996, “The nature of deaf culture: implications for speech and hearing professionals”, *Journal of the Academy of Rehabilitative Audiology*, 29: 71-84.
- Ladd, P., 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 hood”, *Disability and Society*, 18(7): 971-979.
- Lane, H., 1990, “Cltural and infirmity models of deaf americans”, *Journal of the American Rehabilitation Association*, 28: 11-26.
- Lane, H., 1992, “*The Mask of Benevolence*”, New York: Vintage Books.
- Lane, H., Hoffmeister, R., and Bahan, B., 1996, *A Journey into the Deaf World*, San Diego, CA: Dawn Sign Press.
- Preston, P., 1995, “Mother father deaf: The heritage of differenc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0(11): 1461-1467.
- Rosen, R. S., 2003, “Jargons for deafness as institutional constructions of the deaf body”, *Disability and Society*, 18: 921-934.
- Schleif, S. L., 2006, *Exploring Emotion Development of Hearing Children with Deaf Parents: A Qualitative Study*,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Schein, J., 1989, *At Home among Stranger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Vernon, M., and Andrews, J. F., 1990, *The Psychology of Deafness: Understanding Deaf and Guard of Hearing People*, White Plains, NY: Longman.

다음사전 <http://dic.daum.ne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the Deaf

Kim, Mi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ee, Mise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the deaf, from their perspective. This study obtained informatio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people with deafness using sign languag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Giorg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methods. The following main themes were extracted from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interviewed: 'being confined in the world without sound by themselves', 'learning and comprehending how to communicate', and 'looking for identity as a membership of the deaf community'. Sign language was a tool and mediator so that they could come out of their comfort zone, communicate with people, and connect to others in the deaf community. However, on the other hand, sign language had a contradictory role that restricted their activities to the deaf societies that could understand each other using sign languag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be cognizant of how much not hearing and speaking (hearing disability) is a difficulty for human being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s results on policy making and actual practices are discussed focusing on the rights and well-being of the deaf.

Key words: Deaf, Communication, Sign Language, Deaf Culture, Phenomenological Study

[논문 접수일 : 13. 02. 18, 심사일 : 13. 03. 04, 게재 확정일 : 13. 04. 22]